경북동해안지역 경제 일지

(2018년 9월중)

9. 4일 ▶ 경북동해안, 제조업 경기 14개월 만에 '최저치'

○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경북동해안지역 240개 법인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'8월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(업황BSI)'에 따르면 경북동해안지역 제조업 경기가 심각한 위기로 나타남

— 제조업 BSI가 45로 전월대비 8p 하락했으며, 9월 중 경기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'9월 전망BSI' 역시 전월에 비해 6p 하락한 46에 불과하여, 전국 평균 실적BSI 73·전망BSI 77에 비해 각각 20p이상 격차가 확대

— 8월 제조업 분야별 BSI를 살펴보면 원자재구입가격(125→115)에서 10p나 하락했고, 9월 전망BSI 역시 설비투자실행(92→85)과 수출(82→75)은 7p 하락했는데 이는 조선기자재·자동차부품 등 중소기업 중심의 철강부품업체 내수부진에 따른 것

— 비제조업 경기 전망은 다소 나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하회, 비제조업 8월 실적BSI는 72로 전월대비 14p 상승했고, 9월 전망BSI 역시 74로 전월대비 14p 상승

9. 4일 ▶ 경주시,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

○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경주시가 '이천년 고도 경주의 부활'이라는 비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 구축에 주력할 계획

— 황오동 일원 원도심 재생에 향후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해 총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

— 주요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미래상권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, 글로벌 협력 컨텐츠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, 국토교통부 평가 및 승인을 얻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

9. 5일 ▶ 경주 보문단지, 에너지자립기반단지 조성 실증사업 선정

○ 경주 보문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 공유가치창출 서비스디자인 선행사업* 공모 '경북형 에너지자립기반단지조성 실증 사업'에 선정

* 에너지분야 공유가치창출 서비스디자인 선행사업은 지역의 에너지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방안, 신재생에너지·에너지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사업의 디자인을 선행하는 사업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신규서비스 기획·디자인 하고, 경북도에서는 개발 결과물의 구축 및 시범운영을 통해 실증사업을 추진

— 경북도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 1억 5천만원(국비)을 투입, 경북형 에너지자립기반단지 조성 실증사업을 위한 대상지 조사, 주민참여 및 협력방안 마련, 서비스 모델 구축·운영, 신재생에너지 설비 디자인 개발을 종합적으로 실시

— 또한 이와 연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·보급, 통합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, 에너지 절전형 고효율 설비시스템 구축, 미래 에너지비즈니스모델 개발 등 4개 부문 8개 사업에 450억원을 투입해 전력자립률 100% 친환경 지능형 에너지자립단지를 조성할 계획

9. 12일 ▶ 포항시, 고용지표 크게 개선

○ 포항시 고용지표가 최근 철강경기 침체와 지역상권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중에도 크게 개선

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(4월기준)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, 포항시 고용률은 60.7%로 작년 하반기보다 1.5%p 증가했고, 실업률은 2.6%로 1.2%p 감소하여 전국 시 지역 평균 고용률 59.3%보다 1.4%p 높고, 전국 시지역 평균 실업률 3.5%보다 0.9%p 낮은 수치

— 특히, 청년고용률은 작년 하반기보다 5.2%p 증가했고, 청년실업률은 8.1%p 감소해 포항시의 청년 고용 지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

9. 18일 ▶ 경북동해안, 7월 여신 증가폭 확대

○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'2018년 7월 중 경북동해안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'에 따르면 예금은행 여신은 874억원으로 전월(198억원)에 비해 676억원 증가

— 예금은행 여신은 기업대출(-1,317억원→239억원)을 중심으로 전월 -538억원에서 497억원으로 여신 증가폭이 늘었고, 비은행금융기관은 상호금융(530억원→298억원)과 새마을금고(187억원→-15억원)을 중심으로 전월 737억원에서 378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

— 예금은행 수신이 전월 2,701억원에서 -1,492억원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저축성 예금(2,251억원→-1,595억원) 중 기업자유예금(1,808→-2,139억원)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예금은행 수신 감소세를 견인

—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역시 상호금융(209억원→399억원)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은행신탁(276억원→-62억원)의 감소에 힘입어 전월 703억원에서 468억원으로 증가폭이 감소

9. 18일 ▶ 포항시, 흥해지역 명품방재 도시로 건설 추진

○ 포항시는 지난 8월 2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흥해지역을 법률에 의거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

— 흥해읍 소재지 피해주택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토부 기준 100만㎡보다 20만㎡를 더한 120만㎡로 계획해 의회 의견청취를 거쳤으며, 11월 국토부의 특별재생지역 지정 승인을 받을 계획

— 또한,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주도하는 성공적인 특별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와 주민설명회, 주민 설문조사, 주민참여 컨설팅단 구성 등 전 계층과의 협의, 협약 등을 통해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

— 이를 위해 ‘함께 다시 만드는 행복도시 흥해’라는 비전과 ‘주거안정, 치유와 소통, 재난방지, 지역 활성화’ 4가지 목표를 설정했으며, 앞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특별재생 계획을 수립할 예정

9. 18일 ▶ 영덕군, 국토부 ‘2019년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’ 선정

○ 영덕군은 국토교통부 ‘2019년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’에 선정

— 2019년 말까지 총 사업비 약 12억(국비 10, 군비 2)을 들여 국도 7호선(영덕군 남정면~병곡면 구간) 18개 교차로에 지능형 감응 신호제어시스템*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

* 감응 신호시스템은 부도로 진출입차량이나 주도로 횡단보행자를 검지하여 꼭 필요한 신호만 주고 나머지 시간은 항상 주도로에 녹색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